

자력대피 불가 환자 피난 방법



- 등에 업고 이송 (1인 1조)



- 환자의 가슴과 팔을 들고 이송 (1인 1조)



- 손을 끼고 이송 (2인 1조)



- 들것으로 이송 (2인 1조)



- 휠체어 또는 침대차를 사용하여 이송



- 들거나 끌어서 이송
(시트커버, 커텐, 모포 등 이용)



“다시 기억해 두세요”

- ① 대피 시 각 병동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기
- ② 환자에게 방연·방진마스크 착용(없을 시 구조손수건 사용)
- ③ 거동가능환자, 경증환자, 중증환자 우선 대피
- ④ 구조대, 피난용 승강기 등 활용하여 대피

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

소화기, 어떻게 사용할까?

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사용해요!



- ① 안전핀을 뽑는다.
- ②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.
- ③ 손잡이를 움켜쥐는다.
- ④ 분말을 골고루 쏜다.

옥내소화전, 어떻게 사용할까?

여러 명이 있을 때는 함께하면 더 안전해요



- ① 문을 연다.
- ② 호스를 빼고 노즐을 잡는다.
- ③ 밸브를 돌린다.
- ④ 불을 향해 쏜다.

본 행동요령은 재난유형별로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동일한 재난이라도 특수한 경우에는 행동요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면 더욱 안전해요


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

의료시설 화재




사고 사례

• 이천 투석병원 화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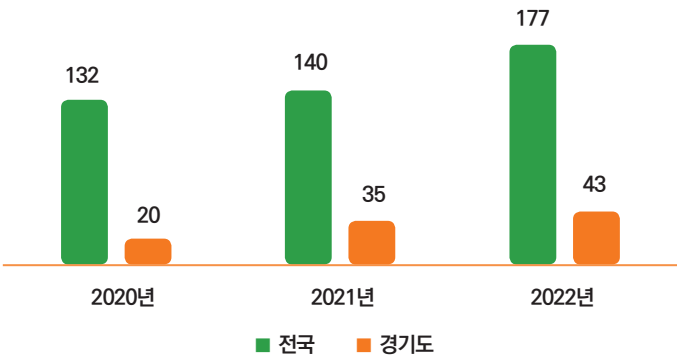
일시	'22년 8월 5일 10시경	
피해현황	사망 5명, 부상 43명	
사건개요	3층 화재가 4층 투석병원으로 확산	

•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

일시	'18년 1월 26일 07시경	
피해현황	사망 47명, 부상 145명	
사건개요	1층 화재발생으로 거동 불편 환자 다수 사상 발생	

현황 및 주요원인

의료시설 화재현황('20~'22년)



- 전국 의료시설 화재 449건 중 경기도 98건(21%)
- '22년 기준 전년대비 19% 증가(경기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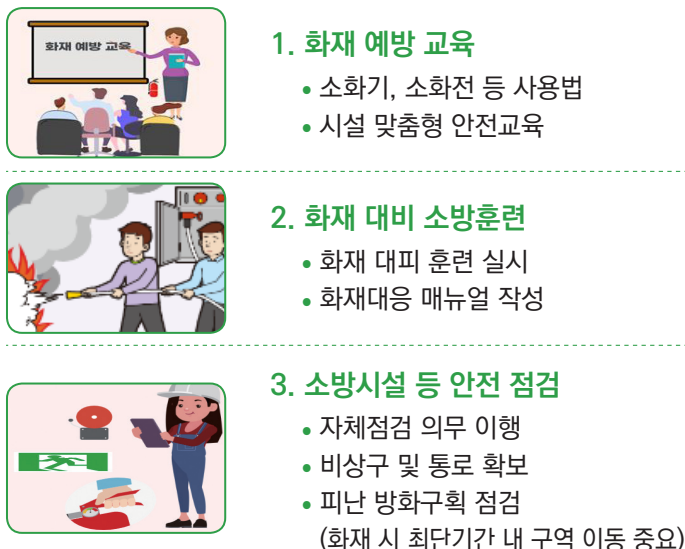
의료시설 화재 주요원인

- 전기적 요인(43.2%) > 부주의(31.4%) > 기계적 요인(9.7%)
- 누전·접촉불량, 흡연·화기취급, 과열·과부하·노후 등

의료시설 화재 특성



의료시설 안전관리



국민행동요령



1. 화재 알리기

- 비상벨을 눌러 주변 병동에 화재발생 전파



2. 가까운 비상구로 대피

- 화재실의 환자를 안전구역으로 대피
- 거동 불편 환자들은 침대나 시트 이용
-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없을때 옥상으로 대피



3. 119 신고하기

- 안전한 상태에서 신고
- 화재위치, 갇힌 사람 등 전달
- ※ 현재위치 : 0동(__부근)00병원



4. 초기 소화 시도(가능할 때)

- 소화기, 옥내소화전 활용 진압
- 진압이 불가능하면 즉시 대피



5. 약속된 장소로 모이기

- 약속된 피난 장소로 이동
- 병실 별 대피인원 파악



6. 대피 후 재진입 금지

- 대피 시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
- 화재진압 전 병실로 다시 진입 금지